인문논총 제45집
2001년 8월 pp. 1~21

현대국어의 어미 및 문법 패턴의 계량언어학적 연구[1](下)

이 상 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인문논총 제44집에서 계속)

2.2.3. 문법 패턴

먼저 앞 절에서 확보한 문법 패턴 목록들에 대한 빈도수 도출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문법 패턴의 형태들이 매개모음의 선행 여부나 앞뒤에 놓이는 말들의 제시 여부 등에 따라 정리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표 5>와 같이 다양한 교재를 대상으로 자료를 뽑아 그대로 나열했기 때문이다. 각 책마다 패턴 제시 방식이 원래 달라 그렇게 된 것이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기로 하며, 제 3란의 숫자가 대상 자료를 통하여 살핀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이 <표 8>과 짝으로 색인처럼 쓸 수 있는 가나다순 목록은 [부록 2]로 뒤에 붙인다. 장황하지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편리하기 때문이다.

---

1) 본 연구의 어미 부분의 일부원고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국제협력연구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시작한 것이었으나, 어미 및 문법 패턴 부분의 본격적 연구는 2000년도 서울대 발전기금 (일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두 연구 단계에 걸쳐 기초적 조사작업은 한신대 국문과 한재영 교수팀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밝혀 감사한다.

〈표 8〉

빈도 순위		출현 빈도	교재 등급
0001	-어(아)가다	741	1
0002	-고 있다	687	2
0003	-지(요)	539	1
0004	-어주다	468	1
0005	-지 않다(-지도 않다)	468	1
0006	-어(아) 다	428	1
0007	-어 있다	392	1
0008	-(이)야	330	4
0009	-어 보다	310	1
0010	-어 지다	293	1
0011	-다고 (보다)	276	4
0012	-게 되다	243	1
0013	-을 수(가) 있다	225	1
0014	-었던	213	1
0015	말이다	211	1
0016	-까(의문)	208	1
0017	-다가	201	2
0018	-을 때	189	1
0019	-을/는 수(가) 없다	169	1
0020	-어야 하다	153	1
0021	좀 -	145	1
0022	-어 놓다	140	2
0023	-도록 (하다)	119	2
0024	에 있다	114	1
0025	적으로	113	3
0026	-어 내다	111	1
0027	적인	109	3
0028	-어 버리다	105	2
0029	-(었)더니	103	2
0030	-어 두다	99	1
0031	-으세요	99	4
0032	-단 말이(야)	98	1
0033	-에 대한	95	2
0034	-니까(이유)	93	1
0035	-(으)십시오	89	1
0036	경우(에)	81	4
0037	-기 때문에	73	1
0038	-사이(에)	68	2
0039	-은 채	66	3
0040	에 따라(서)	62	1
0041	(것) 밖에(는)	60	3
0042	-(었)거든요	60	2
0043	-ㄴ/ㄹ 대로(끝나는 대로)	58	1
0044	-기 시작하다	55	1
0045	-거나 -거나	54	2
0046	-스럽다	52	2
0047	-은데요	51	1
0048	-았다가	50	2
0049	(으)로부터	47	1
0050	-기 위해(서)	46	2
0051	-을 듯하다	45	1
0052	-어 가지고	40	1
0053	-어야겠다	40	1
0054	에다(가)	38	1
0055	-으라면	36	3
0056	가장	36	2
0057	만하다	36	1
0058	-잖아(요)	33	1
0059	이 아니라	33	1
0060	-ㄴ/ㄹ 모양이다	32	1
0061	-어야지	32	1
0062	-ㄴ 양(이다)	31	1
0063	마저	31	3
0064	-군요	30	1

0065	-기로 하다	30	1	0099	상(역사상, 사실상)	17	4
0066	-긴(명사형어미+는)	30	1	0100	에 관한	16	1
0067	-어 달라고 하다	30	1	0101	을/를 제외하(고)	16	4
0068	-인가	30	2	0102	일단 (-다 하면)	16	4
0069	대신(에)	30	2	0103	-(으)십니다	14	1
0070	-ㄴ 사실(이 있다)	29	1	0104	-기 마련이다	14	3
0071	으로 삼다	27	3	0105	-어다 주다	14	1
0072	-(으)려고 하다	26	1	0106	-어야 되다	14	1
0073	-기만하면	26	1	0107	-을 만하다	14	1
0074	-더군(요)	26	1	0108	-을 예정이다	14	1
0075	-을테니(까)	26	1	0109	-을 터(이다)	14	1
0076	-고 나서	25	2	0110	-을까(하다)	14	1
0077	-에 대해서	25	2	0111	-는 동안(에)	13	1
0078	반면(에)	25	3	0112	-은 거예요	13	1
0079	-은 일이 있다	24	1	0113	-을 만큼	13	1
0080	-기 전에	23	1	0114	-기는	12	1
0081	-어 드리다	23	1	0115	-ㄴ 편이다	12	1
0082	-을 정도로	23	3	0116	-을 뻔하다	12	2
0083	거의	23	2	0117	-을텐데	12	3
0084	더러	22	3	0118	자고 (하다)	12	2
0085	-기까지	21	3	0119	-(었)겠나	11	4
0086	만일 (-으면)	21	4	0120	-고 보니	11	2
0087	탓(이다)	21	3	0121	-기가 바쁘게	11	3
0088	(을) 포함(해서)	20	3	0122	-는 바람에	11	1
0089	-답다	20	2	0123	-을 계획이다	11	1
0090	-으세	20	4	0124	의해	11	4
0091	-을 것(까지) 없다	20	3	0125	전혀	11	2
0092	-나요	19	1	0126	(으)로 해서	10	1
0093	-는 점(에서)	19	1	0127	-든지 -든지	10	2
0094	뿐(만) 아니라	19	1	0128	-어도 좋다	10	1
0095	끝에	18	3	0129	(될 수 있)는 한	9	3
0096	(느)냐고 (하다)	17	2	0130	-대요	9	1
0097	-ㄴ/ㄹ 셈이다	17	1	0131	-을 거예요	9	1
0098	-을 가능성이 있다/크다/높다	17	4	0132	-을 무렵	9	4

0133	-을래요	9	1	0167	-V+을 뿐(만) 아니라	5	1
0134	-음직하다 (ㅁ 직하다)	9	1	0168	-고 나면	5	2
0135	(이)외에	8	3	0169	-ㄴ 다음에	5	1
0136	-(으)러 가다	8	1	0170	-느니 (아예, 차라리) -지	5	4
0137	-ㄴ 적이 없다	8	1	0171	-는 때	5	1
0138	-어 대다	8	1	0172	-는 만큼	5	1
0139	-어서는 안되다	8	1	0173	-어서 죽겠다	5	1
0140	-으면 하다	8	3	0174	-은 척(하다)	5	1
0141	-을 리가 없다	8	2	0175	-은 후에	5	1
0142	을 토대로	8	4	0176	-은/는걸요	5	3
0143	-(은) 체하다	7	2	0177	-을 지경이다	5	4
0144	-ㄴ/ㄹ 바	7	1	0178	-지 그래(요)	5	2
0145	-었더니	7	1	0179	과 같이	5	1
0146	-은/는가요	7	3	0180	기어코	5	4
0147	-을 수밖에 없다	7	2	0181	면서(요)	5	2
0148	가 아니라	7	1	0182	하도 (너무) -어서	5	1
0149	같은 것	7	1	0183	-(으)려다가 (말고)	4	1
0150	아무 -나	7	2	0184	-곤하다	4	3
0151	에 불과하다	7	4	0185	-기 싫다	4	1
0152	이야말로	7	3	0186	-기보다는	4	3
0153	(에)서부터	6	1	0187	-네요	4	1
0154	(으)로 인해서	6	1	0188	-는 길에	4	1
0155	-고 나자	6	2	0189	-는 길이다	4	1
0156	-기에는(너무 억울하다)	6	4	0190	-ㅂ니다만	4	4
0157	-는 도중(에)	6	1	0191	-어도 되다	4	1
0158	-던 때	6	1	0192	-었더라면 -았을텐데	4	1
0159	-은 결과(로)	6	1	0193	-은 만큼	4	1
0160	-은 때	6	1	0194	설마	4	4
0161	-을 통해서	6	2	0195	절대로	4	2
0162	-을 필요가 있다	6	1	0196	-고자 하다	3	3
0163	-자면	6	3	0197	-기 짝이 없다	3	1
0164	만 해도	6	3	0198	-기를 바라다	3	1
0165	심지어	6	4	0199	-ㄴ/ㄹ 법이다	3	1
0166	(내가) 보기에는(as far as)	5	1	0200	-나 보다	3	1

0201	-는 길로	3	1	0235	에 못지 않게	2	1
0202	-다니까(요)	3	1	0236	에 지나지 않다	2	3
0203	-더라고(요)	3	1	0237	에서라도	2	3
0204	-어 빠지다	3	1	0238	여간	2	4
0205	-어서라도	3	1	0239	예를 들어	2	3
0206	-었었	3	1	0240	은커녕	2	3
0207	-을 일이 있다	3	1	0241	이고 뭐고	2	4
0208	-을지라도	3	4	0242	이라든지	2	3
0209	-을테면	3	1	0243	좀처럼	2	4
0210	만약 -으면	3	4	0244	-(으)려던 참이다	1	1
0211	못지 않게	3	1	0245	-고 말고요	1	2
0212	에도 불구하고	3	3	0246	-기 그지없다	1	4
0213	이외에	3	1	0247	-ㄴ가 보다	1	1
0214	(이)고 뭐고	2	1	0248	-노라면	1	3
0215	-(기가) 에사이다	2	4	0249	-는 대신에	1	2
0216	-(은) 체 않다	2	2	0250	-는 바	1	4
0217	-게 마련이다	2	3	0251	-는 버릇이 있다	1	1
0218	-기야	2	1	0252	-는 설이 있다	1	4
0219	-길래	2	2	0253	-는 일이 있다	1	1
0220	-ㄴ 김에	2	1	0254	-는 둥 마는 둥	1	3
0221	-ㄴ 적이 있다	2	1	0255	-는들	1	4
0222	-나 싶다	2	1	0256	-은 감이 있다	1	4
0223	-는 중(에)	2	1	0257	-을 따름이다	1	4
0224	-다던데	2	3	0258	-을 목적으로	1	1
0225	-다든지	2	1	0259	당연히 -지	1	4
0226	-던 참이다	2	1	0260	맙소사	1	4
0227	-라는 뜻(이다)	2	4	0261	어느 -(이)나	1	1
0228	-어 치우다	2	1	0262	에 비하면	1	1
0229	-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2	0263	에 의하면	1	3
0230	-을 도리가 없다	2	1	0264	이라서	1	3
0231	-을 도리가 있다	2	1	0265	자칫(하면)	1	4
0232	-을 마음이 있다	2	2	0266	(도) -을 겸	0	1
0233	-자니	2	1	*이하 0334 '주십사'까지 0 의 출현빈도를			
0234	비록 (-을지라도)	2	4	보이는 68 항목들은 생략.			

위의 〈표 8〉은 〈표5〉의 대상 자료를 통하여 살필 수 있는 문법 패턴 (또는 문법 형태)의 빈도를 나타낸다. 〈표 8〉은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택하고 있는 문법 패턴의 도입 순서와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빈도가 높은 항목보다는 빈도가 낮은 항목들이다. 전체 353개의 항목 가운데 79개의 항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110개의 항목이 5번 이하의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낮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의 한국어 교재에 반영되어 있어 그만큼 실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쓰이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의 문법 항목들의 빈도가 낮은 경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까닭은 현실 언어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든가 번역투에 의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교재나 학습 현장에서 제시하는 순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교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회 이상 출현 문법 항목은 1급, 50회 이상의 경우에는 2급, 10회 이상의 경우에는 3급 그리고 9회 이하의 출현 빈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4급 이상에서 다룬다든가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결 론

3.1 활용 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첫째, 외국인 한국어 학습의 실러버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그를 위하여 현재 각 기관에서 간행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교착된 어미 및 문법 형태의 제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의 초급 국어 교재에서 각 형태소의 도입 순서도 재검토해 볼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의 초급교재들에서도 용언부 연쇄 형태의 학습을 재검토하여 가장 자연스런 배열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계번역의 (특히 영한, 일한 부분의) 개발에 큰 지표로써 어떤 국어 표현을 더 선호해서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 목록을 보여 준다. 이공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계 번역에 기초 언어정보 제공이 갈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량언어학적, 즉 자연과학적 방안에 의한 언어 정보의 연구 결과를 비인문계통에 넘겨주는 적절한 기여를 이 연구의 결과에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넷째, 위에서 살핀 어미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이형태와 기본형 선정이라는 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이형태들 가운데 기본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설명이 자연스러운 방향, 역사적인 측면의 고려 등을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판단 기준 적용이 쉽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빈도수를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법형태의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드는 것 자체가 공허한 것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를 테면 과거시제 형태소 '았/었/였' 가운데에서 기본형을 정하는 경우에 우리의 자료에 따르면 압도적인 출현 양상을 보이는 '었'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3.2 남은 문제

이렇듯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내용과 그 활용 가능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와 같은 작업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대상 자료의 확충이다.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결과도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앞서 과거시제의 압도적인 출현 양상이 대상 자료의 성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와 같은 가능성의 확인을 위해서는 자료별로 그 분포 양상을 갈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결과에 대한 2차적인 해석 작업 즉

범주별 재분류 작업 및 그에 따른 해석 작업도 본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록 1]에 재분류의 한 예로서 <어미의 이형태를 한 데 묶은 출현빈도 순위>를 곁들여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연구된 결과들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았으나, 조사(토씨)의 분포 및 빈도 확인 결과도 본 연구와 평행적인 성격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종합적 활용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영석, 이상억(1993) 현대형태론, 학연사.

김홍규, 성광수, 홍종선(1998)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 베이스의 다원적 통계분석 연구. 한국어전산학 2. pp.1-169.

김홍규, 강범모(2000)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남기심, 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문교부 주관(1956) 우리말 잦기 조사, 우리말에 쓰힌 말수의 잦기 조사. 문교부

서상규(1998) 연세 말뭉치 1-9를 대상으로 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도 7 이상—(상),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안병희(1965) 문법론, 국어학개론, 수도출판사.

안병희(1967) 문법사, 한국어 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p. 167-261.

이상억(1986) 계량언어학(어휘론부분): 어휘부의 음운, 형태, 의미론적 구 언어 11.2. pp.323-339.

이상억(1989a) 국어 어휘 목록의 형태, 음운론적 구조 연구: 계량언어학적 표준조사. 어학연구 25.1. pp.111-128.

이상억(1989b) 음절구조의 변화 원인에 대한 이런 설명은 어떨까요? 정연찬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203-210.

이상억(1989c) A Glottometrical Study of Korean Lexicon. Harvard Stud

Korean Linguistics III, Hanshin Publishing Co. pp.159-166.
이상억(1990a) 현대국어 음변화규칙의 기능 부담량. 어학연구 26.3. pp.441-4
이상억(1990b) 국어 어휘부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강신항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331-346.
이상억(1993) 현대 국어의 통사적 현상에 대한 기능 부담량. 안병희 선생 회갑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pp.475-487.
이상억(1997) 현대국어 용언 형태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3. pp.203-222.

[부록 1] 인문논총 44집 본 원고 (상) [부록 1]의 순위 교정

(전략)

103 < 164	FE67	으므로	: 11
127 < 176	FE104	는다고	: 10
112 < 176	FE159	던가	: 10
176	FE297	로군	: 10
176	FE322	면은	: 10
180	FE204	ㄹ세	: 9
180	FE227	라니	: 9
76 < 180	FE358	아도	: 9
183	FE018	게나	: 8
183	FE089	느뇨	: 8
183	FE097	는구나	: 8
183	FE173	디	: 8
183	FE239	란다	: 8
183	FE317	마	: 8
183	FE422	으라	: 8
183	FE435	으려	: 8
183	FE649	진	: 8
183	FE668	래	: 8
183	FE683	이건	: 8
194	FE065	ㄴ바	: 7
194	FE083	노라	: 7
194	FE092	느라고	: 7
194	FE130	다간	: 7
194	FE176	ㄹ걸	: 7
194	FE228	라니까	: 7
194	FE264	려는데	: 7
194	FE423	으라고	: 7
194	FE640	자마자	: 7
194	FE645	지를	: 7
204	FE129	다가는	: 6
204	FE207	ㄹ수록	: 6
204	FE266	려니	: 6
204	FE269	려다가	: 6
105 < 204	FE275	려면	: 6
141 < 204	FE332	ㅂ시오	: 6
204	FE432	으랴	: 6
204	FE500	은가	: 6
204	FE672	려면	: 6
204	FE674	마는	: 6
204	FE688	이니까	: 6
204	FE695	시요	: 6
216	FE137	다만	: 5
216	FE141	다오	: 5
216	FE233	라면서	: 5
216	FE237	라오	: 5
216	FE238	락	: 5
216	FE281	려오	: 5
216	FE306	리다	: 5
216	FE514	을걸	: 5
216	FE524	을라고	: 5
119 < 216	FE556	을지	: 5
226	FE015	건만	: 4
226	FE135	다마는	: 4
226	FE156	더라면	: 4
226	FE160	던걸	: 4
226	FE201	ㄹ밖에	: 4
226	FE277	려무나	: 4
95 < 226	FE323	므로	: 4
142 < 226	FE363	아야지	: 4
226	FE323	므로	: 4
226	FE363	아야지	: 4
226	FE368	야만	: 4
226	FE373	어다가	: 4
226	FE412	으냐	: 4

150 < 226	FE438	으려고	: 4
226	FE442	으려는	: 4
226	FE582	이거나	: 4
226	FE585	이거든	: 4
226	FE588	이기에	: 4
226	FE592	이니깐	: 4
226	FE653	ㄴ데도	: 4
226	FE655	보담	: 4
226	FE689	이라든가	: 4
110 < 226	FE693	자는	: 4
226	PFE008	로(구나/구려)	: 4
250	FE003	거니	: 3
89 < 250	FE027	고자	: 3
250	FE033	구먼	: 3

(후략)

[부록 2] 문법 패턴의 가나다순 목록

빈도 순위		출현 빈도	교재 등급
0148	가 아니라	7	1
0056	가장	36	2
0149	같은 것	7	1
0045	-거나 -거나	54	2
0271	-거늘 하물며	0	1
0083	거의	23	2
0041	(것) 밖에(는)	60	3
0012	-게 되다	243	1
0217	-게 마련이다	2	3
0036	경우(에)	81	4
0168	-고 나면	5	2
0076	-고 나서	25	2
0155	-고 나자	6	2
0245	-고 말고요	1	2
0120	-고 보니	11	2
0002	-고 있다	687	2
0272	-고 해서 반드시	0	3
0196	-고자 하다	3	3
0184	-곤하다	4	3
0179	과 같이	5	1
0319	관계로	0	3
0064	-군요	30	1
0320	그렇게 -을 수가 없다	0	1
0246	-기 그지없다	1	4
0273	-기 나름이다	0	1
0037	-기 때문에	73	1
0104	-기 마련이다	14	3
0044	-기 시작하다	55	1
0185	-기 싫다	4	1
0274	-기 위하여	0	1
0050	-기 위해(서)	46	2
0080	-기 전에	23	1
0197	-기 짝이 없다	3	1
0275	-기가 무섭게	0	1
0121	-기가 바쁘게	11	3
0276	-기가 보다는	0	1
0215	-(기가) 예사이다	2	4
0085	-기까지	21	3
0114	-기는	12	1
0277	-기는 고사하고	0	4
0278	-기도 하려니와	0	1
0279	-기란	0	1
0065	-기로 하다	30	1
0198	-기를 바라다	3	1
0073	-기만하면	26	1
0186	-기보다는	4	3
0218	-기야	2	1

0180	기어코	5	4	0286	-느라니까	0	3
0156	-기에는(너무 억울하다)	6	4	0287	-느라면	0	1
0066	-긴(명사형어미+는)	30	1	0201	-는 길로	3	1
0219	-길래	2	2	0188	-는 길에	4	1
0016	-까(의문)	208	1	0189	-는 길이다	4	1
0321	까지라도	0	1	0288	-는 김에	0	2
0095	끝에	18	3	0249	-는 대신에	1	2
0220	-ㄴ 김에	2	1	0157	-는 도중(에)	6	1
0169	-ㄴ 다음에	5	1	0111	-는 동안(에)	13	1
0070	-ㄴ 사실(이 있다)	29	1	0171	-는 때	5	1
0062	-ㄴ 양(이다)	31	1	0172	-는 만큼	5	1
0137	-ㄴ 적이 없다	8	1	0250	-는 바	1	4
0221	-ㄴ 적이 있다	2	1	0122	-는 바람에	11	1
0115	-ㄴ 편이다	12	1	0251	-는 버릇이 있다	1	1
0043	-ㄴ/ㄹ 대로(끝나는 대로)	58	1	0252	-는 설이 있다	1	4
0060	-ㄴ/ㄹ 모양이다	32	1	0253	-는 일이 있다	1	1
0144	-ㄴ/ㄹ 바	7	1	0093	-는 점(에서)	19	1
0280	-ㄴ/ㄹ 바가 있다	0	1	0223	-는 중(에)	2	1
0199	-ㄴ/ㄹ 법이다	3	1	0289	-는 통에	0	1
0097	-ㄴ/ㄹ 셈이다	17	1	0290	-는다거나	0	4
0247	-ㄴ가 보다	1	1	0291	-는데 좋다	0	1
0281	-나 -나 똑같다	0	3	0254	-는둥 마는둥	1	3
0282	-나 -나 마찬가지다	0	3	0255	-는들	1	4
0200	-나 보다	3	1	0322	는커녕	0	3
0222	-나 싶다	2	1	0034	-니까(이유)	93	1
0092	-나요	19	1	0017	-다가	201	2
0166	(내가) 보기에는(as far as)	5	1	0011	-다고 (보다)	276	4
0283	-냐는 듯이	0	4	0202	-다니까(요)	3	1
0187	-네요	4	1	0224	-다던데	2	3
0284	-노라니까	0	1	0225	-다든지	2	1
0248	-노라면	1	3	0292	-다시피하다	0	3
0096	(느)냐고 (하다)	17	2	0032	-단 말이(야)	98	1
0285	-느냐는 듯이	0	1	0089	-답다	20	2
0170	-느니 (아예, 차라리) -지	5	4	0259	당연히 -지	1	4

0069	대신(에)	30	2	0052	-어 가지고	40	1
0130	-대요	9	1	0026	-어 내다	111	1
0074	-더군(요)	26	1	0022	-어 놓다	140	2
0203	-더라고(요)	3	1	0067	-어 달라고 하다	30	1
0084	더러	22	3	0138	-어 대다	8	1
0158	-던 때	6	1	0030	-어 두다	99	1
0226	-던 참이다	2	1	0081	-어 드리다	23	1
0266	(도) -을 겸	0	1	0294	-어 버릇하다	0	3
0023	-도록 (하다)	119	2	0028	-어 버리다	105	2
0129	(될 수 있)는 한	9	3	0009	-어 보다	310	1
0127	-든지 -든지	10	2	0295	-어 보았자	0	1
0227	-라는 뜻(이다)	2	4	0204	-어 빠지다	3	1
0293	-락 말락하다	0	1	0007	-어 있다	392	1
0063	마저	31	3	0004	-어 주다	468	1
0164	만 해도	6	3	0010	-어 지다	293	1
0210	만약 -으면	3	4	0228	-어 치우다	2	1
0323	만에 하나 -으면	0	4	0261	어느 -(이)나	1	1
0086	만일 (-으면)	21	4	0105	-어다 주다	14	1
0057	만하다	36	1	0296	-어도 괜찮다	0	1
0015	말이다	211	1	0191	-어도 되다	4	1
0260	맙소사	1	4	0128	-어도 좋다	10	1
0181	면서(요)	5	2	0297	-어서 그랬는지	0	1
0211	못지 않게	3	1	0298	-어서 그런지	0	3
0190	-ㅂ니다만	4	4	0173	-어서 죽겠다	5	1
0078	반면(에)	25	3	0139	-어서는 안되다	8	1
0234	비록 (-을지라도)	2	4	0205	-어서라도	3	1
0094	뿐(만) 아니라	19	1	0001	-어(아) 가다	741	1
0038	-사이(에)	68	2	0006	-어(아) 오다	428	1
0099	상(역사상, 사실상)	17	4	0106	-어야 되다	14	1
0194	설마	4	4	0299	-어야 얼마나 -겠습니까	0	1
0046	-스럽다	52	2	0020	-어야 하다	153	1
0165	심지어	6	4	0053	-어야겠다	40	1
0150	아무 -나	7	2	0061	-어야지	32	1
0048	-았다가	50	2	0042	-(었)거든요	60	2

0119	-(었)겠나	11	4	0055	-으라면	36	3
0300	-었댔자	0	1	0136	-(으)러 가다	8	1
0029	-(었)더니	103	2	0072	-(으)려고 하다	26	1
0145	-었더니	7	1	0270	-(으)려니까	0	1
0192	-었더라면 -았을텐데	4	1	0183	-(으)려다가 (말고)	4	1
0301	-었더라면 -었을걸	0	1	0244	-(으)려던 참이다	1	1
0302	-었더라면 -을걸	0	2	0267	(으)로 말미암아	0	1
0014	-었던	213	1	0071	으로 삼다	27	3
0206	-었었	3	1	0154	(으)로 인해서	6	1
0303	-었으면 싶다	0	4	0126	(으)로 해서	10	1
0100	에 관한	16	1	0049	(으)로부터	47	1
0304	-에 달려 있다	0	2	0140	-으면 하다	8	3
0033	-에 대한	95	2	0229	-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2
0077	-에 대해서	25	2	0090	-으세	20	4
0040	에 따라(서)	62	1	0031	-으세요	99	4
0235	에 못지 않게	2	1	0103	-(으)십니다	14	1
0151	에 불과하다	7	4	0035	-(으)십시오	89	1
0262	에 비하면	1	1	0256	-은 감이 있다	1	4
0263	에 의하면	1	3	0112	-은 거예요	13	1
0024	에 있다	114	1	0159	-은 결과(로)	6	1
0324	에 접한	0	4	0146	-은/는가요	7	3
0236	에 지나지 않다	2	3	0176	-은/는걸요	5	3
0325	에게든지	0	3	0160	-은 때	6	1
0054	에다(가)	38	1	0193	-은 만큼	4	1
0212	에도 불구하고	3	3	0079	-은 일이 있다	24	1
0305	-에든지	0	2	0039	-은 채	66	3
0237	에서라도	2	3	0174	-은 척(하다)	5	1
0153	(에)서부터	6	1	0216	-(은) 체않다	2	2
0238	여간	2	4	0143	-(은) 체하다	7	2
0326	예를 들면	0	3	0175	-은 후에	5	1
0239	예를 들어	2	3	0047	-은데요	51	1
0327	웬일인지	0	3	0240	은커녕	2	3
0328	웬지	0	3	0098	-을 가능성이 있다/크다/높다	17	4
0269	-(으)나 마나	0	1	0131	-을 거예요	9	1

0091	-을 것(까지) 없다	20	3	0162	-을 필요가 있다	6	1
0123	-을 계획이다	11	1	0311	-을 향해서	0	2
0019	-을/는 수(가) 없다	169	1	0312	-을게요	0	1
0230	-을 도리가 없다	2	1	0110	-을까(하다)	14	1
0231	-을 도리가 있다	2	1	0313	-을는지 모르다	0	1
0051	-을 듯하다	45	1	0314	-을동 말동	0	4
0257	-을 따름이다	1	4	0315	-을락말락	0	1
0018	-을 때	189	1	0133	-을래요	9	1
0330	을/를 무릅쓰고	0	4	0208	-을지라도	3	4
0101	을/를 제외하(고)	16	4	0316	-을지언정	0	4
0141	-을 리가 없다	8	2	0075	-을테니(까)	26	1
0232	-을 마음이 있다	2	2	0209	-을테면	3	1
0113	-을 만큼	13	1	0117	-을텐데	12	3
0107	-을 만하다	14	1	0134	-음직하다 (ㅁ 직하다)	9	1
0258	-을 목적으로	1	1	0124	의해	11	4
0132	-을 무렵	9	4	0059	이 아니라	33	1
0329	을 바탕으로	0	4	0268	(이)고 간에	0	1
0116	-을 뻔하다	12	2	0331	이고 간에	0	4
0167	-V+을 뿐(만) 아니라	5	1	0214	(이)고 뭐고	2	1
0306	-을 생각도 못하다	0	1	0241	이고 뭐고	2	4
0307	-을 성 싶다	0	1	0242	이라든지	2	3
0013	-을 수(가) 있다	225	1	0264	이라서	1	3
0147	-을 수밖에 없다	7	2	0008	-(이)야	330	4
0108	-을 예정이다	14	1	0152	이야말로	7	3
0207	-을 일이 있다	3	1	0135	(이)외에	8	3
0308	-을 자신있다	0	2	0213	이외에	3	1
0309	-을 적에	0	1	0068	-인가	30	2
0082	-을 정도로	23	3	0102	일단 (-다 하면)	16	4
0177	-을 지경이다	5	4	0118	자고 (하다)	12	2
0310	-을 참이다	0	1	0233	-자니	2	1
0109	-을 터(이다)	14	1	0317	-자든지	0	1
0142	을 토대로	8	4	0163	-자면	6	3
0161	-을 통해서	6	2	0265	자칫(하면)	1	4
0088	(을) 포함(해서)	20	3	0058	-잖아(요)	33	1

0025	적으로	113	3	0334	주십사	0	1
0027	적인	109	3	0178	-지 그래(요)	5	2
0125	전혀	11	2	0005	-지 않다(-지도 않다)	468	1
0195	절대로	4	2	0003	-지(요)	539	1
0332	제기랄	0	4	0087	탓(이다)	21	3
0333	제에기	0	4	0182	하도 (너무) -어서	5	1
0021	좀 -	145	1	0318	-해 마지 않으며	0	4
0243	좀처럼	2	4				

[부록3] <연구대상 자료(원고) 일부 예>

<TV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박태중, 김현철 자금제공 했다

검찰, 한승수 의원 소환키로

카메라 출동, 한강의 심야 불법어로

미스코리아는 ?

이인용 앵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중략)

타고난 美 아니다

이인용 앵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미스코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한의사가 역대 미스코리아의 체형을 분석해 봤는데 키는 평균에 비해서 너무 크고 체중은 평균치에 모자라는 비정상 체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기자입니다.

이진숙 기자:

지난 95년에 미스코리아, 키는 그 나이 또래 천 명 가운데 18번째로 큰 170㎝ 였고, 가슴둘레도 101번째로 큰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몸무게는 50kg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미스코리아 최종 후보들의 키를 분석해 봤습니다. 평균키가 171.7㎝ 인데 반해서 몸무게 평균은 51kg에 불과했습니다.

옥도훈 한의사:

체중만 보더라도 표준 체중보다 10kg이 모자란 상태인 저체중이거나 영양결핍인 상태인데 가슴은 일반인보다 기형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납니다.

이진숙 기자:

170㎝ 의 미스코리아와 역시 170㎝의 표준 체형을 비교해 봤습니다. 미스코리아가 몸무게는 10kg이 적었고 허리는 약 7.8㎝ 작은데 반해서 가슴둘레는 오히려 3.2㎝가 더 큽니다. 표준 체형의 사람의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일 경우 몸무게와 허리 히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슴둘레는 미스코리아처럼 늘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스코리아의 체형은 일부를 제외하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 등으로 만든 체형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과거엔 복스러운 얼굴에 통통한 몸매 그리고 수줍은 듯한 매무새에서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는 말은 후덕함과 인자함을 겸비한 찬사였지만은 지금 그런 전통적인 여인상은 건강하지도 않고 비정상적인 체형에 자리를 내 주는 세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미인 만들기

이인용 앵커:

이렇게 보면 요즘 미인은 만들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

형 수술까지 받아 가면서 서구형 미인을 추구합니다. 미인을 만들어 가는 세태. 임영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에 미인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해 본 적 있어요?"
"키는 되겠죠.. 그런데 몸무게가 안 될 것같은데요."

임영서 기자:
모델이 되거나 미인대회에 나가기 위한 과정은 일반인들이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혹독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또는 대형 미장원의 소개로 차밍스쿨 등을 찾으면서 미인 만들기는 시작됩니다. 차밍 스쿨을 들어온 20살을 전후한 여성들은 보통 6개월 이상 미인 입문을 위한 지옥 훈련을 받습니다. 걸음걸이 화장술 태도 교육은 기본이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서양인 같은 날씬한 몸매 만들기입니다.

이지현씨 (미스코리아 지망생):
아침밥 먹고 운동을 가요. 한 두 시간 운동을 한 다음에 점심은 잠깐 빵이라든가 그런 걸고 군것질 잠깐하고,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임영서 기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력만 가지고 미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미스코리아 선발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바쁜 곳은 성형외과. 아름다움의 기준치가 돼 버린 서구형에 맞춰 가슴을 키우고 지방질을 깎아 냅니다. 젊은 여성들은 특히 엉덩이가 쳐져 보이지 않도록 지방 제거 수술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체형을 타고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성일 원장 (정성일 성형외과):
남보다 더 완벽한 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런 미는 없어지고 인공미가 더 강조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임영서 기자:

20대 우리나라 신토불이 미인의 신체 평균은 대략 160㎝의 키에 53㎏의 몸무게 서구의 기준에 맞춰 미인을 만들어 가는 풍조 속에 전통적인 아름다움이나 건강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영서입니다.

Quantitative Research on Suffixes and Grammatical Patterns in Present-day Korean

Lee, Sang-Oak

In this paper, I will present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fre ranking of the following items in modern Korean: (1) prefinal and fina (the latter are used as conclusive morphemes or non-conclusive morpheme (2) the grammatical patterns and adverbial phrases that are connected sentential adverbs. Oddly, there is no research to date on the frequency both suffixes and grammatical patterns. In the 1956 survey conducted Ministry of Education entitled "A Survey of Word Frequency in Korean" basic form of verbal endings were surveyed. In 1997, I conducted the fir of agglutinating suffixes(e.g., conclusive morphemes and non-conclusive mo entitled "Quantitative Research on Verbal Morphemes in Modern Korean" 1997). Since then I have not been able to expand this research to a lar but this first pilot study already showed a valuable index such as ord quency. A couple of others' studies on the frequency of suffixes h reported based on their larger corpus but those of grammatical patter done by others.

<Frequency of Prefinal and Final Verbal Suffixes>

001	FE127	다	: 6039	002	FE042	ㄴ	: 5790
003	FE021	고	: 3843	004	FE093	는	: 3056
005	PFE015	었	: 2454	006	FE371	어	: 2341
007	PFE016	였	: 1498	008	PFE014	았	: 1300
009	FE017	게	: 1288	010	FE643	지	: 1109

<Frequency of Grammatical Patterns>

1 grade 1	-어(아) 가다	741
2 grade 2	-고 있다	687
3 grade 1	-지(요)	539
4 grade 1	-어 주다	468
5 grade 1	-지 않다(-지도 않다)	468
6 grade 1	-어(아) 오다	428
7 grade 1	-어 있다	392
8 grade 4	-(이)야	330
9 grade 1	-어 보다	310
10 grade 1	-어 지다	293

The above findings are useful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y are in developing a rational basis for pedagogical syllabi and materials Korean as a foreign or a second language. They are also useful in analy order of presentation of suffixes and structures in existing materials of Korean. This information is useful in improving these materials developing new materials. Second, the findings can also be applied to the order of presentation of morphemes in elementary Korean materi children in Korea. As with materials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 mation is useful in developing a natural and pedagogically effective o agglutinating verbal morphemes. Third, the findings are relevant t translation (particularly English-Korean and Japanese-Korean) because t information on which Korean expressions are more preferable in tra Machine translation, a field that has emerged from computer engineerin accurate linguistic information to succeed and the linguistic informati based on research methods from natural science, in this paper can help bridge from the humanities to engineering.